

## 2024년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발 언 자	내 용
<p>○ 간사 (의정팀장)</p>	<p>○ 참석자 소개</p>
<p>○ 위 원 장</p>	<p>○ 회의 개최 ○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음.</p>
<p>○ 의회운영전문위원 (국외출장담당)</p>	<p>○ 2023년도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p>
<p>○ 위 원 장</p>	<p>○ 2023년도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lt; 질의 없음 &gt; ○ 질문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구의회 의원 및 공공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건을 상정함.</p>
<p>○ 간사 (의정팀장)</p>	<p>○ 심사방법 및 진행방식 설명</p>
<p>○ 위 원 장</p>	<p>○ 공무국외 출장지별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음.</p>
<p>○ 대표의원 1</p>	<p>○ 두바이 출장계획 제안설명</p>
<p>○ 대표의원 2</p>	<p>○ 유럽(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출장계획 제안설명</p>
<p>○ 대표의원 3</p>	<p>○ 대만 및 싱가포르 출장계획 제안설명</p>
<p>○ 위원장</p>	<p>○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자료 및 심사표를 바탕으로 질의 바람.</p>
<p>○ △△△위원</p>	<p>○ 선택한 출장지가 어떤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출장 후 어떤 프로세스로 적용을 해서 구정 발전에 임하실 건지 답변 바람.</p>
<p>○ 의회운영전문위원</p>	<p>○ 출장지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되어 대표로 답변드리겠음. 우선 두바이는 섬을 도시화해서 관광 자원화시킴 이를 벤치마</p>

발 언 자	내 용
(국외출장담당)	<p>킹위해 출장예정이고, 유럽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염두하고 추진할 예정임. 또한 대만은 교육제도도 굉장히 앞서 있고 저희와 인구 출산 감소 이런부분에서 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출장예정임. 출장 후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 조례 발의나 정책제안 등을 집행부와 소통 후 추진할 계획임.</p>
<p>● ▲▲▲ 위원</p>	<p>○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질의를 하겠음 이 계획서에는 어떤 대상지를 방문해서 서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겠다고 하는 프로세스가 없음. 예로 두바이의 환경과 서구의 환경은 매우 다른데 어떤 이유로 두바이를 결정했는지 의문임. 다른 출장지도 마찬가지로.</p>
<p>● 대표의원 2</p>	<p>○ 유럽 출장을 준비할 때 장소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겠음. 프랑스에서 15분내에 모든 인프라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자동차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전거나 도보로 모든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저희가 방문하려는 비옴칸 섬은 버려져 있던 건물들을 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2분내의 도시라고 볼 수 있음. 2분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곳에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건 여기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 앞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축을 할 때 탄소 절감을 위한 에너지 생산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그런 규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음. 그럴 때 적용하기 위해 확인하고자 함. 서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인천대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위 상부 공간에 38m 폭에 가좌동에서부터 여기 가정동 끝까지 녹지 공간 공원이 형성될 예정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라 데팡스의 경우 거리에서 그냥 나무만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들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시민들이 어떤 곳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즐기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자 함.</p>




발언자	내용
	<p>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주제가 겹쳐지는 시설을 일부러 많이 방문 일정을 잡았음</p> <p>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도 양쪽 국가에서 다 방문해서 도시재생 지역을 갈 거고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로 양 국가에서 다 갈 예정임</p> <p>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도 양 국가에서 갈 건데 우리 서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게 굉장히 미미함.</p> <p>지금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에서 신생 업체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공간을 대여해주고 관리비 정도만 내고 사용하는 거 외에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사업에 대한 걸 리드해 주고 있는지가 부족함.</p> <p>이런 모델 특히 스테이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와서 당장에 이제 남은 임기가 사실 2년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뭔가를 딱 반영해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우리 구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이 도시 전체의 건축물을 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건축물이라도 차근차근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음.</p>
<p>● ▲▲▲ 위원</p>	<p>○ 전체적으로 출장 스케줄이 계속 벤치마킹인데 현장탐방 후 토론회라든지 그 지역 공무원들과의 정보 교류 등이 필요할텐데 혹시 현지나 정부 쪽에 코디네이터가 확보 되건지 질문함.</p>
<p>● 의회운영전문위원 (국외출장담당)</p>	<p>○ 전문 통역사들을 섭외함. 전문 통역사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 가이드와는 역할이 다름</p>
<p>● ▲▲▲ 위원</p>	<p>○ 출장지 목적을 보면 지금 이제 겹치는 부분이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그다음에 친환경 시설 에너지 관리원 그다음에 복지 보건복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분야별로 나라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p> <p>계획서상 다 벤치마킹으로만 돼 있는데 대상지를 명확하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도 함께 진행을 추천함.</p> <p>지금부터 나라별 질문하겠음.</p>

발 언 자	내 용
	<p>도시개발, 복지 등 정책을 위한 현장 시찰로 두바이를 간다고 하는데 두바이와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정책을 설정하고 반영할 건지 궁금함.</p> <p>또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는 목적이 의료 산업 육성위한 성공요인 분석 및 청라 의료 복합타워 조성 및 활용방안을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청라는 토지 매입도 다 되었고 구성이 거의 끝난 상황인데 어떤 활용 방안을 또 하신다는 건지 궁금함.</p> <p>두바이에서 마스다르 시티 탄소 제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도시겠구나 생각함. 그 다음 유럽은 도시재생과 친환경이 주요 목적인데 신포지움이나 세미나를 병합해서 가는 방안을 추천함.</p> <p>대만과 싱가포르 역시 이 출장 이후의 정책 프로세스, 어떻게 정책을 통해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음.</p>
<p>○○○위원</p>	<p>○ △△△위원님의 질문 핵심은 계획서에는 대부분 목적만 기재되어 있는데 목적이 적용될 서구의 지역이나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다고 보임.</p> <p>그래서 논의하시는 단계에서는 여기에 있는 목적을 좀 추상화해서 왜냐하면 좀 구체적으로 아주 좀 좁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폭넓은 목표를 설정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목적 내에서 염두에 두시는 대상지나 어떤 인천 서구의 사업이 있을 것 같음.</p> <p>예를 들면 사실 인천 서구는 재래시장이 전국구로 봤을 때는 유명한 시장이 별로 없는 편임.</p> <p>그리고 인천 서구가 굉장히 인구가 많고 면적이 아주 길게 넓음에도 랜드마크라고 볼 만한 지역이 별로 없음.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점을 랜드마크로 생각하셨는지 궁금함.</p> <p>또 아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서구가 그런 지원이 좀 부족한데 스타트업에서도 사회적 경제지원이나 이외에 어떤 사업을 염두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듯함.</p>
<p>대표 의원 3</p>	<p>○ 지금 원도심 석남동과 연희동 심곡동 이런 쪽에는 굉장히</p>

발 언 자	내 용
	<p>좀 문화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옛날 오래된 주택 그런 곳이 많아서 많이 노후화 돼 있고 문화시설도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임.</p> <p>그리고 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임.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원도심의 환경적인 면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음.</p> <p>그리고 저희 심곡천이나 공천천 그런 데는 요즘 수질 문제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가서 보고 저희 정책에 반영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자 함.</p>
<p>● 대표의원 1</p>	<p>○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음. 공무국외출장지를 고민하다 한 나라에 머물며 더 깊이있게 살펴보기로 결정함. 출장의 핵심적인 목적은 각자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뭔가 배우고 그것을 지역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가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로 팀을 구성했음. 이에 두바이 출장지 소속 의원님들은 청라와 검단, 루원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분들임.</p> <p>서구에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없는데</p> <p>지금 청남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141층짜리 CT 타워를 건설하겠다고 도시개발 계획 초부터 2006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그게 안 되고 있음. 그런 것들이 이 관광적인 랜드마크로서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 첫날 저희가 에마르사를 제일 먼저 방문하는 이유도 그런 궁금증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것임.</p> <p>청라에 들어설 14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물은 친환경적인 건물로 지어져야 하므로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봄.</p> <p>현안과 관련된 곳을 방문할 때는 좀 깊이 있게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는 계획을 둬.</p> <p>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나 세미나를 연결시키면 좋은데 제가 두바이에 기관 방문을 섭외하는데 두바이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관 섭외가 쉽지 않음. 두바이는 기관 하나를 섭외할 때마다 그 섭외 비용이 있고 더 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저희가 예</p>

발언자	내용
	<p>산이 한정되다 보니 더 많이 넣지 못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에 환경과 맞는 곳들로 방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p> <p>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소각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소각장을 보고 와서 느낀 점은 확실히 다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사례와 그들의 사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점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디가 좋아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러한 장점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사례화를 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가 어떤 것일까라는 거 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음.</p> <p>서구는 산업 용지로서의 부지가 충분히 있음에서도 그것이 발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거 위주가 아닌 상업 위주로 발전을 위해 두바이와 같은 계획 도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한 랜드마크로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보고 싶어서 두바이를 선택함.</p>
<p>○○○위원</p>	<p>○ 전문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게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또 일본 정도면 잘 조율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기초의원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요청해서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맞는지.. (전문위원 대답) 네 맞습니다.</p> <p>이런 상황에서 자부담을 들여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봄. 다음으로 출장 후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지금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골고루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정책적 제안이나 질의를 해당 부서나 구정 질문 등을 통해 구청에 제안했으면 함.</p> <p>또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도 제안함. 이후 출장 결과보고서에 위에 제안드린 내용의 반영여부를 담아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p>

발 언 자	내 용
○○○위원	<p>○ 두바이 관련해서 대표의원님이 주로 언급하신 지역이 청라 점단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바이를 목적인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그냥 재생 에너지 도시재생 이런 것만 기재되어 있음.</p> <p>근데 지역을 국한하셔서 청라나 점단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의안이나 정책을 내시면 추후에도 충분히 출장지가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질 것임.</p>
대표 의원1	<p>○ 출장 같이 가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점단이나 청라, 루원쪽 의원님들임.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위치들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 버즈 칼리파 같은 경우는 청라 시티타워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마스다르시티 같은 경우는 청라 국제 연구 단지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헬스케어 시티는 아까 제가 설명 때 말씀을 드렸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다고 이해바람.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결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p>
○○○위원	<p>○ 여기 보면 목표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동일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는 거는 정책을 좀 신속하게 변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음.</p> <p>그래서 같은 목표라도 각 지역 각 나라마다 다른 점을 잘 반영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정책 반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잘 선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봄.</p>
△△△위원	<p>○ 대만 쪽에 혹시 가능하다면 재난 방지센터 관련해서 서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재난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오길 부탁함.</p> <p>한 군데 포커스를 잡아서 정책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가길 제안함. 또한 결과보고에는 어느 대상지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왔으며 이후 후속조치로 예로 조레나 정책 등을 써서 변화시키겠다든지 최소 몇 년 까지 본다는 프로세스가 구체화 돼서 나오길 부탁함.</p>

발 언 자	내 용
<p>○  의회운영전문위원 (국외출장담당)</p>	<p>○ 기관 방문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는 사전자료를 구비한 상태 임 이는 출장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의원님들간 토의와 업무분장 등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동행하는 정책지원관 들도 충분히 숙지할 예정임.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추후 결과보고에 충분히 내용을 담을 예정임.</p>
<p>○  △△△위원</p>	<p>○ 계획서에 정당성이나 명분이 좀 명확하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계획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홈페이지 에 게시하길 제안함.</p>
<p>○  위원장</p>	<p>○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에 잘 담 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람.</p> <p>○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함 &lt;심사의결서 작성 후 결과 취합&gt;</p> <p>○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두바이 공무 국외 출장지에 대한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하였고 출석 의원 4명 중 4명이 찬성함. 따라서 출석 의원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2024년 서구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두바이 공무 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다음 유럽 공무국외 출장지에 대한 심사 결과 출석 위원 4 명 중 4명이 찬성하여 2024년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유 럽 공무 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마지막으로 대만 및 싱가포르 공무 국외 출장지에 대한 심 사 결과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이 찬성하여 2024년 서구의 회 의원 및 공무원 대만 및 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lt;회의 완료&gt;</p>